



▲ 현장접수대 모습



▲ 분과별 환경정책설명회 진행모습

환경정책 설명회 성공적 마무리

7월 10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내용도 풍성... 기후변화 대응기술, 폐기물에너지 사업 등 눈길



▲ 환경체험 및 환경기자재 전시부



▲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팀 최병철 팀장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재은 사무관

환경기술인과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이 교류하는 제6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 전시회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는 '환경 그 하나의 이름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2008한국환경한마당 행사와 함께 진행됐는데 한마당 행사에는 모두 3만여 명이 참가해 일반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 전시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환경부의 정책을 그 직접적인 수요자인 환경기술인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환경기업들도 새로운 신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장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첫째 날인 10일 행사는 모두 4개 분과로 구성해 민과 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현안에 대해 상호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은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제1분과는 물환경분과로 배출업소 1종 사업장의 수질 TMS 구축계획과 산업수질관리 방안 및 수질오염 총량제 등 관련정책이 설명됐고, 제2분과는 환경전략 분과로 신정부 환경정책방향,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및 수처리 기술 등이 집중 설명됐다.

또 제3분과는 대기관리 정책방향, 사업장대기총량 규제, 악취관리 등이 다루어졌고, 제4분과는 고유가 시대의 폐기물 자원화 정책 및 에너지화가 집중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양질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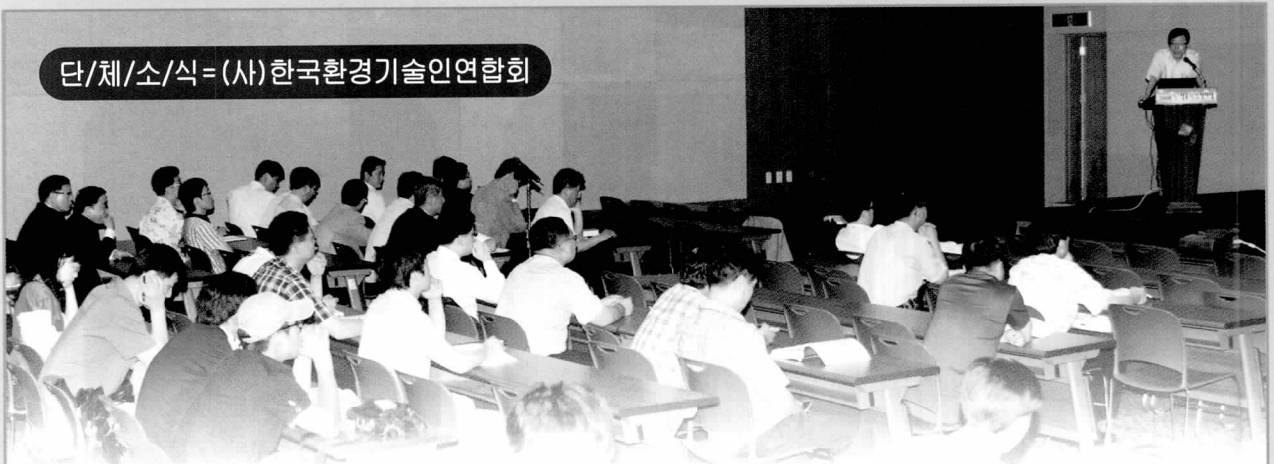
다양한 정책방향과 처리방법을 모색하고 정보 공유의 장으로 손색이 없었다는 평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매년 참석하여 환경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최신 기술의 동향도 볼 수 있어 좋았는데 올해도 역시 기대에 충족할만한 수준이었다."며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직접 개발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행사와 더불어 부대행사로 최첨단 환경 관련 기자재 전시회도 병행되어 실시했는데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환경관련업 종사자들이 많이 참석해 유익한 정보와 최신 환경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문장수 단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해 전시장의 각 부스를 돌고 발표장을 찾아 관심을 갖고 들어봤는데 일부 기술의 경우는 아주 우수해 바로 신기술인증을 신청해도 될 수준이었다"며 "진흥원은 고객감동을 넘어 고객을 위해 줄도까지 할 각오로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부가 최근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았는데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팀 최병철 팀장은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및 발전사업은 고유가 시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물론 신규 매립장, 소각장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며 환경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자체가 협력해 광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비 50%를 지원하겠다"고



▲ 자원순환분과 진행모습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신총식 환경부 환경기술과장은 환경R&D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정책설명을 했는데 “정부는 환경 R&D 기반확충 및 투자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많은 과학기술자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연구기관 등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므로 연구기관 등에서의 관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박광칠 사무관은 “탄소성적표기제 시범인증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며, 향후 유통매장과 연계해 인증제품에 대한 홍보 등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지원과 함께 제도 출범 시 정식 인증제품으로 등록해 주는 등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둘째날인 11일에는 환경부 담당공무원과의 토론회와 우수공무원 및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공무원과 환경기술인 등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환경기술인은 질의를 통해 “환경부가 지나치게 합동단속 등 중복단속을 하지 말고 한 곳에서만 단속을 하고, 환경부의 정책을 현장에 있는 실무진이 잘 알 수 있도록 자주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자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박연수 과장은 “상수원구역의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면 되었지

규제가 완화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업은 법규가 정한 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과장은 “현장 기술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책을 알려주길 바라는데 산업수질관리과 전 직원이 홍보 요원화 되어 총동원될 정도로 바쁘게 설명하고 있으며, 행사 성격에 맞게 가장 적절한 사람을 필요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의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채은 사무관은 “물환경관리 목표와 기본방향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로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주요정책을 질문자들에게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최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에너지화에 대해 환경부 산하기관 간 업무 분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혼선이 있고 있다.”고 지적하자 환경관리공단 에너지처 김유식 처장은 “환경관리공단은 이미 여러해 전부터 소각시설과 연계해 폐기물 에너지 사업을 벌여오고 있으며, 특히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연료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구 주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솔직하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절박한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환경부 공무원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열린 마인드로 대화에 나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모두가 유익한 자리였다는 평을 들었다. (㉔)